조계사 일요법회

사람이 꽉 찬 지하철, 뾰족한 구두를 신은 발이 내 발을 뭉갰다. 자연스레 '에이 씨'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내 '부처님이셨으면 되레 미소를 지으셨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든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면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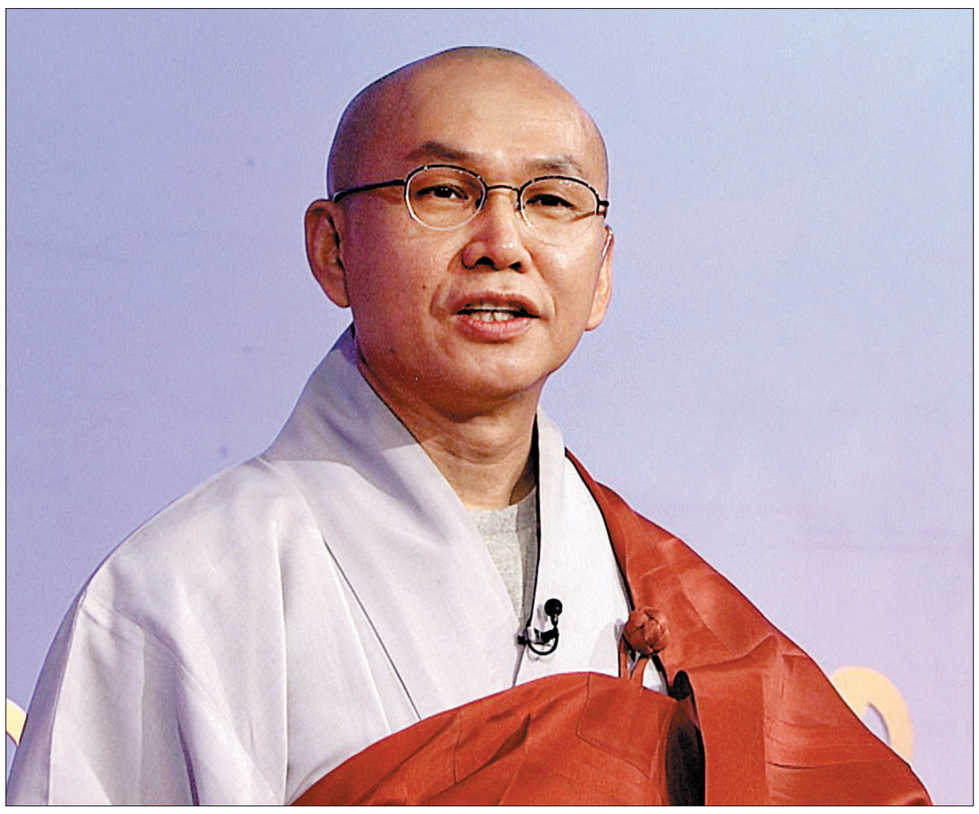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1월 21일 조계사 일요법회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자'를 주제로 법문했다. 남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이를 삶과 일치시키는 삶이 기적을 만든다고 말했다. 스님은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투영해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 후회한다. 후회란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미소 한 번으로 부처님 삶 살아간다"

주제 : 부처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자

남전 스님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1992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용주사 포교국장과 기획국장, 군종특별교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포교국장, 총무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군종교구 부교구장과 조계사 선림원장직을 맡고 있다.

연초에 해가 바뀌고 한파가 왔습니다. 길상사에 계신 법정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중국의 동산 스님이란 분이 제자와 하던 문답이었습니다.

제자가 하루는 "더위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동산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더위가 없는 곳으로 왜 가지 않느냐"고 동산 스님이 물었어요. 제자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딥니까?"라고 하니, 스님이 "가마솥에 들어가면 더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그 말씀을 빌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위 · 추위를 이기려면 더위 · 추위와 하나가 되면 된다"고. 추위와 하나가 되면 추위를 이기기 쉽습니다.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위와 하나가 되라는 말씀대로 오늘의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적 가치의 중요성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시키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린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지요? 저는 어린왕자라는 책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왕자의 질문은 늘 본질에 가까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밉지는 않지요? 여러분도 저를 좋아해주면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위와 하나가 된다면
추위를 이길 수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과 내 삶을
일치 시키면 기적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재적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삶을 결정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치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결과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때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고 결과적 가치를 투영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재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미리 나의 할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결정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투영해보지 않고 지나고 나서 그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감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감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삼일동안 감동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스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가족 · 집안은 잘 되는 집안입니다. 감동이 그렇게 선순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살림살이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살림이란 말은 절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인아산(破人我山) 양공덕림(養功德林). 파인아산은 즉 나라는 생각이 산 만큼이나 대단하지만 양공덕림, 너와 내가 다르다는 말을 깨뜨리고 공덕의 숲을 자꾸 기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산을 따오고 뒤의 림을 따와서 산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림으로 바뀐 것입니다. '살림살이 나아졌다'고 할 때 살림은 너와 나라는 차별을 버리고 공덕을 쌓을 때 나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라는 생각 때문에 파인아산을 깨뜨리는 것은 아닌지, 공덕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야라고 표현하는 것은 파인아산 양공덕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차별의 생각을 버리고 공덕을 쌓는 일을 하면 그 주위의 인연 있는 사람과의 공덕이 나빠질 수 없습니다.

선재적 가치에 입각해 짓는
한 번 미소로 업장 없어져
너와 나 다름을 깨뜨리고
원력의 힘으로 살아가자

부처님과 내 삶을 하나로

파인아산 양공덕림을 왜 못할까 생각해봅시다. 부처님의 삶과 내 삶이 분리가 되어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성취 되는 겁니다. 불자는 당연히 부처님의 공덕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알려주신 것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부처님께서 매번 공양 때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낮춰야 가능합니다. 부처님이 하루는 아주 유명한 브라만 집에 탁발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 주인은 신도를 부처님에게 다 뺏겨서 부처님이 미웠습니다. 브라만은 부처님이 탁발을 오자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육신이 멀쩡한데 너는 왜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고 동냥을 구하느냐 스스로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순간 브라만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브라만은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혹시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 손님 중에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냐'고 묻습니다. 브라만은 당연히 손님이 선물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찌 됩니까?'하고 물으니 브라만이 '다시 가지고 돌아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욕은 받지 않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순간 브라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겠다면서 좋은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브라만이 욕을 할 때 부처님께서 같이 욕을 했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전생에 무슨 악연으로 저렇게 싸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양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계시니 지나가던 사람이 전생에 무슨 선덕을 지었기에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듯 빙그레 미소 짓는 그 하나로 삼생의 업장이 없어집니다. 부처님이 미소 한 번 지어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커다란 법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조용히 미소 한번 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 부처님의 이런 선재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중생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삼생의 죄를 짓는 것이지만 한 번 웃어주는 것으로 삼생의 업장이 녹여지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아셔야합니다. 좋은 불자가 되는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욕을 할 때 짜증을 낼 때 한 번 빙긋 웃어주는 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빙그레 미소 지어 줍시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미소 짓는 한 번에 미묘한 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불자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매일이 좋은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의 미소를 못해서, 부처님의 선재적 가치를 내 삶에 투영하지 못해서, '내가 왜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안 할 수 있는데 후회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봅시다. 미소 한 번 지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업장의 힘보다 원력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다음 생보다 금생이 훨씬 좋아야 다음 생을 좋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8년 불교학과 5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3월 8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CD 배송,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 목	①불교의 체계적 이해 (아함경 1) ②불교문화와 포교 ③선불교 ④근본불교(아함경 2) ⑤반야심경 ⑥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김형준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최종남교수
2년차	과 목	⑦인도불교 ⑧중국 · 한국불교 ⑨법화경 ⑩화엄경 ⑪정토불교 ⑫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김경집교수 차차석교수 박 종교수 주명철교수 정성준교수 정엄스님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 저녁반, 통신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1월 15일 부터
■ 문 의 : 사무처 02)732-1206 ~ 8 FAX 02)732-1207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한불련)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각과 개강일

• 불교다도학과 (2년과정) 3월 6일(화) 오전 11시
• 불교미술학과 (2년과정) 3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전통범패의식반 (2년과정) 3월 7일(수) 오후 2시
• 한글불교의식반 (2년과정) 3월 10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 02)732-1206~8 F.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출강 및 통신 2018학년도 제27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정명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7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8년 2월 28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